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해방과 민족의식

제 24 회 광복절을 마치 하며 에 스 라 1:1 ~ 4

1) 이스라엘 망국의 원인

이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특별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다. 애굽에서 노예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해방을 받고 가나안 복지에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에서 오늘의 과학으로서도 도저히 해석하기 어려운 기적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식하게 되어서 국내민안의 행복의 생활을 하게될 때에 크나큰 하나님의 은

혜를 망각하고 인간중심으로 차세적 향락의 생애를 보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경계하셨으나 이 민족은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서 살고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매를 힘차게 때린 것이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중 중요한 인물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국권은 빼앗기게 되었고 왕도 같이 잡혀갔다

2) 바벨론나라에서 회개할

이국에 잡혀가서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잘못된 죄악을 깨닫게되어 이들은 한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것을 알게되었다

3)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 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민족에게 소망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에 귀국할 것과 장차에 나라에 광복을 보여주셨다

4) 지도자 두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

국권은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되었다. 바벨론왕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짝지르셨기 위하여 큰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너무 교만함으로 메대바사나라에 권세를 주어서 교만한 바벨론을 치고서 바벨론이 망한후 바사왕 고레스왕연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자 에스라에게 명하여 제일차로 이스라엘민에게 자유를 주고 원하는자는 귀국하라고 하였으며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였다. 그들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귀국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사람이 반대의 깃발을 들고서 싸우려고 하였다. 그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역사는 급속히 완성하였다. 이것은 오늘 우리 조국의

전국 청년수양회

무 사 히 마 침

전국 연합 청년회의 수양회는 8월 12일부터 4일간 고렘바 東山莊에서 갖었는

데 무사히 끝냈다

참가자는 약 120명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란 주제말에 「우리들의 사회 책임」이란 주제로 공부했다



사정과 비슷하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이다. 때가 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설 것이다.

5) 귀국인솔자 두사람의 지 도리념

가, 에스라는 종교적 면에 훌륭한 지도자 였다. 성경을 전국민들에게 가르쳤으며 윤리 도덕면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전 부흥을 크게 이룩했다. 나, 느헤미야는 외형적 활동가로서 정치적으로 국제간 친선과 국가의 내환을 평정시키고 재건에 능할자 였다.

6) 우리의 광복절

우리는 일제의 압정하에서 36년만에 완전히 국권

을 회복 하였으며 그날의 기쁨인 우리나라 전토의 기쁨은 내환외난의 기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 남북통일에 장해인 북쪽 사마리아가 주야로였 보고 있으나 그것은 조금도 염려할것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곧 완전한 통일의 날이 올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마칠 때에 마다 선조의 잘못된 죄악 (정당의 잘못된 죄악) 을 하루바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 완전한 통일의 빛나는 국가건설을 바라는 바이다. (平野교회목사 정인수)

「신도를 찾아서」는 금호 쉬게 되었습니다

(시) 뜨거운 기도

조 남 기

8 월——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는 정열의 숨결
활짝 자유에의 열린 산 푸르름
우러러 출렁이는
바다의 물결
넘치는 축배가 오가는 마을에
바람 펄럭이는 깃발과
대한민국 만세 만 만세
터질듯 강토에 번죽이 울린다

주여

내 기도의 소리가 사무치던 그날
열리는 누리가
풀리던 쇠사슬과
태극기는 온겨레 노래가 되어
발지는 산하의 가슴이 지더니
아아 하늘 높이 높이
평화의 기쁨종이 울리었나이다

이땅은 인재 당신의 발등상
백의의 제단 타오르는 불길들
기도 찬송 예배가 터전되어
여호와의 노래하는 8.15의 웃음
당신은 진정 내 사막의 절정

하나님이여 평화의 사도여

저 높이 파아란 하늘
백구 날아 창공 몇만마리
우리나라 또 북역 고향 몇천리인네
누비단 38선 저리 목이 매어
제트기가 소릴질러 날아 오름니다

—기도월보 8월호에서—



大阪城공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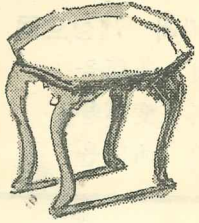
제24회 광복절 기념식전

8월 15일 大阪에서 제24회 광복절 기념식전이 거류민단 大阪府 지방본부의 주최로 森宮 大阪城공원에서 있었다.

약5000명이 모여 기념식 공로자의 표창 및 감사장

수여가 있었다

여흥에 들어가 민족제전으로서 노래와 연주등이 있었다. 그러나 너무 햇빛이 쨍쨍찌는 더운인지라 도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해 방 의 날

갈라디아 5장 1 ~ 13절

船橋 교회 목사 맹 천 희

1) 24년전 이날 8월 15일은 우리에게 꿈이 현실로 밝혀진것 같이 느껴지던날입니다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선언한 정으로 부터 우리겨레에게서 36년간의 절고 결박이 풀려지던 날 살아졌던 태극기발이서 울역전에 날림을 보고 전 국민은 목놓아 만세를 부르던날 백의 치마 저고리 입은 노부녀들은 치마끝으로 눈물을 뿔던날 어떤자 본가는 「김서방 우리 해방이 되었는데 자네에게서 빛을 받아선 무얼하겠소」 하고 탄감해 주던 날 어떤이는 증용 증병에 가서 죽은줄 알았던 내 아들의 귀환을 즐겨 눈물을 흘리던 날이었습니

다 한편 어저께 까지 금성주택에서 으시대던 500만명의 일본인은 일조에 보따리리 하나씩 들고 아이들을 손에 이끌면서 시간을 다루며 그들의 조국일본에 도망치던 날이 또 이날이었습니

다 누가일장 51절—3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자를 높이셨고 주리는자를 좋은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의 요절이 시 아닌 글자 그대로 현실로 변화된 것으로 느껴졌던 때입니다 이것은 해방을 한 표면으로 본 묘사의 내용인 정치 군사 국제외교 경제 사회의 내면에 대해서는 언급 하려 아니합니다 그런것에 대해선 앞날 기회로 밀리기로 합니다

2) 이러한 잊지 못할 해방의 날을 어떤뜻으로 우리가 마지하려는가에 대해서 몇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 성경에서 보는 해방민의 역사

이것은 두말할것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첫째 애굽에서 살던 그들은 바로왕의 폭정하에 수난을 당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 께서는 이압박과 수난받은 백성을 보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 출애굽이란 해방의 구원을 주었습니다 제재 그 해방의 방법으로 위기에닥칠때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는확정을 얻었습니다 넷째 이 출애굽한 해방민에게 40년이란 사막의 생활을 통하여 훈련의 시대를 주셨읍니다

나) 우리 민족의 해방 이상의 네가지 면을 우리 민족해방과 비교하여보기로 합시다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으로 우리는 왕을 잃었고 영토를 빼앗겼고 쌀을 제공했고 노동력을 착취 당했고 증병으로 유혈의 희생을 받았고 우리최고문화제인 언어를 잃게하

여 멸족의 위기에 이루었습니다 이점은 바로왕의 압박과 근사합니다 둘째로 이때 하나님은 특별한 구원으로 해방을 주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과언이 아닌 사실입니다 셋째 구름과 불기둥의 특별한 계시는 우리는 못받았읍니다 그러나 다음과같은 면이 있었읍니다 합병을 인하여 동포가 각국해외에 발산한 인구 4백만명이었읍니다 그중 3백만명은 해방을 인하여 귀국했읍니다 남은 백만명중 재일동포가 60만명입니다 이 귀국한 동포는 하나님이자신 특별한 은혜받은 사람들이었 읍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는 한때는 귀국못

—여 전 도 회 소 식—

영 혼 의 양 식

9 월 월 예 회 용

마태 9:9~13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외면하는 세리마태를 불러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마치 보옥사가 광산에서 캐낸 그대로의 거치른 돌덩어리 속에서 광채나는 보옥을 감별 해내듯 예수님은 힘써 세상이 돌보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 곳에서 성도들을 창조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나 물없는 사막에 샘물이 솟아 오름같은 희망적인 변화가 일어났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뒤를 따르른다는 우리가 스스로 죄악의 어두움속에 파묻혀 힘없이 넘어져 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주위가 아담해진다고 너무나도 속히 실망해버리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자 거룩한 사도로 택하여 쓰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어두움 속에서도 앞날에 전개될 아름다운점을 찾도록 기도하며 힘쓰

십시오 최악의 현실가운데서 최선의 장래를 달관하면서 힘써 봉사하며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참모습이요 믿음으로 주님의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의 능력있는 생활입니다

× ×

주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희안의 모든 죄된 허물을 보혈로 씻어주시자 주님을 바라볼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지니게 하소서 저희의 영의 눈을 밝히 뜨게 하소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이땅 어에서나 빛의 자녀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금년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총회일 (10월7 8일) 이 가까워 읍니다 각부부장님과 각 지방회에서 총회에 참석하실 총대들을 미리부터 물색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 이영숙—

함을 부끄럽게도 생각한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재일동포는 조국의 전란을 같이 적지않고 지낼수 있었읍니다

이것은 모국측에서 보면 비급한 일일런지 모르나 타면 우리는 속지적 운명으로 이렇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달을수 있습니다 이런면에서보면 구름과 불기둥이 아닌 구름과 불기둥의 특별보호를 받음을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보호를 받은 재일동포라면 여기에 하나님의특별한 목적이 있음도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야말로 우리 재일대환기독교

회의 자명일것입니다

넷째 출애굽 이후 40년사막의 암담한 생활은 현재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찾고 찾으며 그리워하던 우리 조국의 분단된비극이야말로 이 사막시대아니겠읍니까 그러나 이 절망적인 사막시대 후에는가나안땅의 축복이 주워졌던 것과 같이 우리민족의 통일날이 있음도 틀림없는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해방의 기념일을 통하여 근대화하는 조국을 도울 결심 재일동포로서 꼭 찾아야할 시민운동 통일을 위한 기도와 협력운동등은 이 해방의 의무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계숙—

거 둠 많은 수 양 회

—관서지방 여전도회—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재일교포선교70주년을 마지하는 준비와 본회 창립 15주년을계기로 하여금 젊은 세대의 활동과 교회생활에 있어 생명의 빛과 양식을 인도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를 마련코저 주의 쏘씨가 그대로 곱게 나타난 산수 경치가 절승인 해수욕장 앞의신와가노우라 시치요엔 공중은천여관의 친절환 접대도 받아가면서 특히 기도와 고대하신 한국아동교육의 전문가인 안정진 목사님을 모시게 됨을 기뻐하며 1년전에 본회 청년부 설치로서 청년수양회를 같이 하게 된것도 금번 수양회의 한갓 특색인 동시에 본회의 사업추진에 있어 새로운 기록이 되었다

참가자는 강사 5명 일반 어머니들 79명 젊은어머니들 51명 합계 130명이 프로그램 순서대로 기쁨과 희망에 넘치는 얼굴로 건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자연의 섭리와 주의 사랑을 누리면서 자연의 섭리와 주의 사랑을 힘입어 뜻깊은 본회 수양회의 개최예배로서 시작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청년부 1박2일은 너무도 짧은것이 섭섭한감도 있었으나 이 수양회에서 느낀바를 종합토론 시간에는 어머니들의 반성과 결심한바를 서로 간증했고 청년들은 이 수양회에 처음으로 참석한것을 매우 기뻐할 뿐더러 유익한 기회임으로 앞으로 계속 같이가

지기를 요망하였읍도 반가운 일이며 우리 여성들은 신앙에 대한 문화의 지식을 풍부히 가짐으로서 올바른 가정을 이루워 자녀교육의 중요성도 자각하여 그 취할바를 여기에서 많이 배우게 되고 실천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신 안목자님이 체험한 강연을 열심으로 들은 어머니들은 실로 반성회개환바 많았고 젊은 어머니들은 그대로 생활에 옮기겠다는 느낌과 결심한바를 서로 발표하여 새로운 지식의 영양을 담복 취하게 되었다 본회부장의 의무를 다하는 김원치목사의 문화생활의 강의와 정인수목사의 신앙설교와 본국 여전도회의 상향에대한 이영숙총무의 강의와신앙의 체험에 대한 백인수여선교사의 강의등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지적영양과 감명을 주게되고 기타 재미스러운 여러가지 순서로서 시간 가는줄 모르게 3박4일도 어느덧 족다 싶히 많은성과를 보게된것과 내년의 본회의 성황을 크게 기대하여 가장 기뻐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수양회의 성과는 실로 주의크신 역사와 여러 강사님들의 열정과 본회 진행의월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가회원들의 성의적인 협조로서 무사히 마치게 됨을 심히 반갑게여기면서 여기에 책임진 회장의 입장으로서는 진심으로 감사와 뜨거운 기도를 삼가 보내는 바입니다

(회장 김주일)



関東中部地方修養会

上高地で 七月八～九日間

7月8～9日の二泊三日に互って、信仰生活という主題のもとに、伝道局長の金元治牧師を迎え、アシユラム形式による修養会が、日本最高の景勝地と云われる上高地の山荘に於て開かれた。8日午前7時に松本駅にて集合し、雨中にも拘らず三十数名の信徒は観光バスで出発した。

上高地に着いて、午前11時より、先づ金漢弼長老の司会のもとに朴命俊牧師の説教による開会礼拝から始った。エゼキエル36:25-30を通して『来る時は弱く、石の様な心で来た。しかしこの心を御前に明け渡す時、主が私達を清め、新しい心を与え給う。70周年に向かい、重要な使命が与えられている時、この良き場所で、この恵みを受ける事を思う時、感激に耐えない』という様なことを語られた正午は弁当を共に食べ、四時から金元治牧師に依る導きがあった。全員、三分間黙禱した後、一人づつ順番に何の為に来たかを短く語って行く。祈りは田永福牧師と呉允台牧師がされる。金元治牧師はヨハネ2:7-10の御言を通して、『溢れるまでの水を入れて貰って、それがブドウ酒になるべきである。私たちが水がめであり、私たちの体に神の恵を溢れさせるべきである。水を入れた僕たちの様に神の教会の為に奉仕する者のみが神の恵みの秘密を知っている。そして最後まで良きブドウ酒が残された様に、今までそんな良きものが在ったのかと云われる継続した信仰をもった者となるべきだ』という様なことを云われ、全員祈禱して讃美歌で終る。午後7時からの親睦会は大変楽しかった。それは金炳基長老の他に見られぬ程のユーモアとウィットに富んだ名司会の為でもあった。9時からの晩禱には本国から来られた李永肅伝道師がお話して下さった。マタイ14:23を通して『勝利の後にこそ謙遜に祈り、父に全てを委ね、父との交わりによって力を得、新しき仕事、使命の為に前進し生命を捧げ苦しみつつ主なる父に心を注いで行かれたキリストを、有頂点で、自信満々でありつつも肝心な時に散っていった、

群衆や弟子達とを対比させてひきさがって祈り給うキリスト』を語られた。翌日の早天礼拝は、各々が黙禱し、聖書を読み、感銘を受けた所を各々が一節づつ読んで行って祈りで終る。9時からの第二回目の講演に於ては先づ三人の人の証しがあった。ヨハネ14:1をもって『西新井教会がいかにして出来たかを省みる時神は決して見捨て給わず生きて働いておられる事を痛感しただからいつも心を騒ぜないで神を信じそして又キリストを信じなさい』という様なことを金漢弼長老は証された。次に舟橋教会の婦人は祈りによって不安がなくなったと

証し、次に名古屋の徐又春執事はヤコブ1:5-6を通して信仰をもって願い求める時必ず神はかなえて下さるという事を悟ってゆるぎない信仰をもつ事の大切さを証された。それから講師による講演があった。ヨハネ13:23を通して『主がいかに私を愛して下さっているかを十分に自覚する所に、新しい恵みを受け、隣人にも分け与えうる愛を持ち得る。その様な時となろう』と語られた。それから、田永福、金元治、朴命俊、呉允台の各牧師による分団祈禱会が行われた。『聖書に表われた祈りの力』についてのお話があった。祈りによって、神

の大いなる力が表わされた事について、聖書を通して語られ、大いなる感銘を与えた。9時から、申英子伝道師司会のもとに安道宜牧師による晩禱があった。祈りによる従と横との和解、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による平和を運ぶ大使となるよう祈る』という様なことを語られた。翌早朝金元治牧師による恵みを分かち合う時間を持った。各々が自分の受けた恵みを短く語って行った。最後に一人一人の為に、指導牧師が祈って下さり呉牧師の祝禱で一応一切のプログラムを終えた。大変恵まれた修養会であった。11時前に出発し、約7時間に亘る冒険に満ちた乗鞍岳経由のバス旅行は全くすばらしく、孟哲輝牧師代理の全責任者の尹官炳執事の配慮なしには考えられない。感謝を以て閉じた。

(岐阜教会 金承俊講道師記)

ては番犬や旧態依然の番兵としての慣例の足構えを捨てよう努めている。なぜ神の霊の導きの約束をたずさえている教会が、世を通じてすでに全くこの考えがいき渡っているときに彼らの地図をこえた考えと計画を取り入れる危険をあえてとろうとしないのか？は在日大韓基督教会はすべてこれに注意深くし、くまれた60年から70年の10年間の発展目標において実現できることを示していると思う。(ランサム牧師)

尹宗銀牧師 アメリカでの日程表

西宮教会の尹宗銀牧師はさる7月1日にアメリカニューヨークのユニオン神学校へ1年間留学するため出発した。それまでの日程は下記の通り

- ▶7月1日バンコウバーに到着(0、ニュセント牧師)
- ▶7月2～11日青少年のドグラスキャンプに参加。(11才以上)
- ▶7月12～19日ナラマタキリスト者ドレニングセンターで《共産主義とキリスト者》と《激変における選択》の研修会に参加。(トム・ブラウン)
- ▶7月19日～26日ナラマタキリスト者ドレニングセンターで《教会と社会》研修会参加
- ▶7月26日～8月2日青少年のセニアコ・コドキャンプ。(13～14才)
- ▶8月3日～9日B・Cのソレントセンターで《教会の改新》研究会参加。
- ▶8月10日～15日シルバレイクで指導者訓練研究会参加。(ガードルキヤニンハム牧師と共に)
- ▶8月16日～28日ブライリスとロツキンでオリエンテイション、旅行と観光
- ▶8月29日～9月1日サスカチュワンでクリストオブアキヤン15～19才青少年のコ・エドキャンプ参加。

三今日の世界における教会の宣教三

講演 1、教会の宣教についての聖書的根拠

…………… 於 60周年記念 教職者研修会 ……………

(2) それは融通がきかなくしてはならない。設定された形と自由な形は両方とも望ましいものであり、時が許す限り使われるべきである。在日大韓基督教会は時にかなったシンプルでふさわしい祈禱文式を發展させてもよい。すべての牧師は時にそうすべきである。知的にかつ盲信的でなく使われるとそれらは教会員の参与を鼓舞することになる

(3) それは要領を得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ぬ。それ故に礼拝はもっと明確でなければならぬ。礼拝の内容はわれわれの個人的な要求だけでなく全世界のニードでなければならぬ。われわれの世界のためのとりなしは、すべての礼拝の中に目的かつ本質的な部分である。牧師は地域、国家、世界の中にある人々と真にかかわる事柄に機敏でなければならぬ。これをするためにキングストンの大会では人々は礼拝に朝刊を持って来て祈るべき事柄をとりあげて読むことを求められたのである。

(4) それははっきり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1コリント14:9) 異言やかなり多くの牧師がするように旧式の言葉

で語るよりも理解しやすい方法で礼拝する方がもっと重要である。テープレコードとその他の視聴覚が多いに礼拝のために使われるべきである。AVACOはここで助けになる。

(5) それは時にかなっ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ぬ。礼拝は人々がともに来ることのできる時に持たれるべきである日曜日の朝の11時は特別に聖なる時であると考えられるべきではない。この時は丁度若者が郊外の田舎で夏の陽を楽しむべき時であろう。社会的習慣と労働時間は認められねばならない。米合衆国の多くの教会は木曜日の夕方に礼拝を守っ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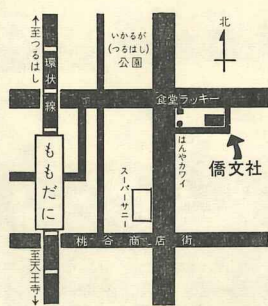
(6) それは必ずしも教会の建物に制限されるものではない。礼拝はキリストのうちにあり、エルサレムの寺院の中で行なわれるのではない。特殊なニードに合うために建物のない教会員を考えるべきであろうか。特に家にいる人よりも職場にいる人々に会おうとする特殊伝道のためにどこでも礼拝する自由を主張せねばならない。

(7) それはエキュメニカルでなければならない。一つの

教派の伝統のみを代表する礼拝の型は偏狭的かつ貧困に陥りやすい。われわれは他の伝統のキリスト者とともにたえず礼拝の型を發展すべきである。これは特に若い人にとり適切なことである。われわれは共に礼拝し、多くの伝統を学ぶことになりお互から学び合わねばならない。おおくの流れを結び合わせた南インド教会の祈禱文式の豊さを比較して見るがよい。G・ハブル牧師がサリー・オークカレッジでこれから出かける宣教師のためにオリエンテーションプログラムをあつかっているとき、彼女がこれらの若い宣教師たちにとって非常に中広かつ啓発的な経験の一つはお互に礼拝の型を分かちあうことであると言った。

最後に、報告書は礼拝と教会生活のあらゆる分野におい

新しい社屋で営業をしております



僑文社

大阪市生野区鶴橋南之町2-335
電話 大阪 716-5046番



聖 書

知恵と失敗と恵み

創世紀 47:7~12

1. ヤコブはイスラエルともいわれるもう一つの名前をもっていた。ヤコブとは押し除くという意味であり、イスラエルは神の皇太子という意味である。ヤコブはこの二つの面をもっていた。彼はエサウとの双子であって母の胎内で押し合っていたのである(創25:22)。彼は兄エサウが飢え疲れた時にレンズ豆のあつもので長子の特権を買った(創25:33~34)。父イサクの盲目をいいことにして兄エサウであるとウソを言って兄の毛深い所を見せるために子やぎの皮で手と首のなめらかな所を毛深く見せたのである(創27:16, 23)。このようにして長子の特権の祝福を受けた(創27:27~29)。それから妻の父ラバンの家を去る時には黒い羊とまばらな羊を自分がもらえることになると強い羊が黒い羊を生むように皮をはいた枝を群にむかわせておいたとのことである。このようにして自分がもらえる羊をふやしたのである(創30:37~43)。

2. しかし、このようなヤコブの知恵はすべてヤコブを不幸にさせる原因となった。エサウから長子の特権をうばった彼は追い出されて家に居なくて、荒野で野宿する旅をつづ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創27:41, 28:10)。妻の父からは羊の革をあまり多く取りすぎるのでそこからも追い出されるはめになった(創31:1~2)。父をだまして長子の特権をとったヤコブは今後は自分の息子らによってだまされ

れた。それはヨセフを売って息子たちが父ヤコブには野獣がヨセフを殺したと言ってやぎの血をヨセフの着物にひたしてもって来たのである(創37:29~33)。

3. しかしこのようなヤコブに対して神の祝福の恵みは絶えなかったのである。あの失意

の中での荒野の旅の時に、主は天使を通して祖父アブラハム、父イサクに約束した祝福を彼にも与えると約束した(創28:12~15)。ヤコブは感激して「神がここにおられるのに知らなかった」と言った(創28:16)。彼は妻ラケルをもらうために14年間もラバ

……ボンヘッファーの

神学的思考…… —7—

宗教改革以後に羅馬教皇権打破された時、個人の信仰が高揚され、又国家もその束縛から解放されて、その威力が17、18世紀には大いに増して行つたのである。そして国家が新たに個人の自由を圧迫するに至り、国家概念は教会とは何の関係もなしに自然法に基礎を置いた全体主義的現代国家主義が勃興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ある。国家は国民の安全と福祉の為に権力を要求したのではあるが、それを自己目的に使用し、又一切の審判者となることによって全く世俗国家とな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国家概念の変化と共に教会概念も変化したのである。教会はもはや国家と対等の制度ではなく、人間の信仰的、私的団体となつたのである。従って国家は完全に宗教的関係を脱して、独裁者となることによって、歴史の中に野蛮主義を導入したのである。第一次第二次世界大戦後

の諸国家は過去には想像も出来ないような全体主義的、権力国家となり、教会との関係も、一層破壊的となり、野蛮的行為を行つたのである。その時になって漸く、教会は自己に託された委任の重大性を悟り、全体主義的現代国家との関係を明確に宣言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のである。このことがオックスフォード会議を始めとし、タムブレム、アムステルダム、エバンストン等のエキュメニカル会議の宣言となつて現われたのである。この様に、第一次、第二次世界大戦後の現代主義国家に於ては支配諸団体が国家を自己権力の道具に変化させてしまったので、ローマ書13:1の「統治的権威」又は「上に立つ権威」(エクスシーア)だと言いだない程に国家本質が変わ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この様な国家は機械的な恐るべき権力となり、神の法とは関係なしに、自己

の家で働いた(創29:18, 30)そのラケルは末子ベニヤミンの難産で死んだ(創35:16~19)そしてヨセフは息子たちの反感でエジプトに売られたが父は死んだと思った(創37:33)このような耐え切れない苦しみにあったけれども、神はその熱心な祈りを聞き入れて祝福を与え、名前もイスラエルといった(創32:26~31)。死んだと思ったヨセフはエジプトの総理大臣となつたので彼は他人の子らの家族と共に余生をエジプトで楽しんだ(創47:27)。

(西成教会 金元治牧師)

の法を作つてそれを自己目的に使用し、一切を要求し、方向までも指導する独裁者となつてしまったのである。この様な現代国家に於ては、権力者が先づ自己利益を考えている故に、真の法と合法的国家とかは、も早や在り得ず、最高の権威でもない。従って全体主義国家の支配者たちを無條件に、ローマ書13:1~4で語っている様な、統治的権威を帯びた神の僕だと呼ぶことは出来ない。この様に、パウロを始めとし、宗教改革者たちを経てバルトやボンヘッファーに至る伝統的路線とも云うべき、代理又は委任概念より見る解釈を少し修正しなければならぬであろう。(バサ プシユケイ エクスシーア イス ヒュベレクレーサイス ヒュボタセツストウ)「全ての人は、上に立つ権威に従うべきである。」という命令は国家の秩序が神の法の下に置かれており、又神の秩序だと云う時、この様な条件下でのみ受け入れうるべき言葉だと思ふべきである。即ち(エクスシーア)とは単なる国家権力ではなく、権威と責任を帯びたより高い権力と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

である。オットー・デイペリウスやアイヴィントウ・ベルグラーフはルター派の伝統的国家観又は国家に対する態度の修正を叫び、ナチに対して公然と抵抗したのである。しかしハンス・リルイエ、ワルター・キンネトウ、ハンス・ヨアキム・イヴァントウ、マルティン・フィシャー等はいかか修正論には反対したのである。国家権威は創造の秩序であり、混沌とならぬ様に保護する所の神的なものである故に、神を認めようとしない政府であっても、なお神の秩序であるとリルイエは語つたのである。彼よりも更に一步進んでキンネトウは全体主義国家の中に於ても神の「保存の秩序」が認められるのだと語つた。イヴァントウは革命による国家であると云えども伝統的同化をして行つて遂には合法国家となりうることもある故に、時間を与えてやらねばならず、信者たちは法の下に於て国家を助けようと云つた。フィシャーは国家形態が歪曲されたものであったにしても、なおも国家は神の僕であり、又、たとえ全体主義国家であるとしても神の言である。モーセの十戒の第二部分(隣人への戒命)に拘束されている故に、「制約された全体主義」であり、それでも神の僕であるとしたのである。バルトもこの様な路線に従つて始めは神に対する信頼を証言しつつ信仰の証言者としての召命を受けていることを強調したのであるが、後になって、国家が神の賦与した機能を遂行する限りに於て信者は国家に服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たのである。彼の思想体系それ自体は伝統的でありつつも国家との問題に於ては状況倫理などという名目の下で修正しているのである。ボンヘッファーに於ても同じだといふ。一つづつ

(岐阜教会 金承俊講師)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 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 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 曾根崎町 2-21

電話 大阪 (06) 341-2162

